◈며느리 권씨 열전 17-3

호랑이를 잡은 함양 열녀, 초계 정씨 정태일의 처 권씨부인

함양 동호정 내부의 단청, 오른 쪽에 호랑이 그림이 있다. 함양 내에는 호랑이와 관련한 전설이 많다.

내려오는 관련 전설

'노부부의 버선밭골'

한자 老夫婦-/분야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유형작품/설화/지역: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하원리/시대:조선/조선 후기/집필자 남기민

[정의]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하원리의 버선밭골에 관련하여 전해오는 이야기.

[개설]

'노부부의 버선밭골'은 노부부가 자식도 없이 단둘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몽달귀신이 호랑이로 변신하여 영감을 잡아먹자 할머니가 호미로 호랑이에게 맞서다 죽어 열녀비를 세웠다는 이야기이다.

[채록/수집 상황]

1994년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문화원에서 간행한 "우리고장의 전설"의 61쪽에 수록되어 있다.

[내용]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에는 금실 좋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자식도 없이 오직 둘이 의지하며 서로 지극히 사랑하면서 살았다. 한편 마을에는 1년에 한 번씩 외로운 몽달귀신이 찾아오곤 했는데, 올 때마다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다. 이번에는 금실 좋은 노부부를 시샘하여 호랑이로 둔갑하여 부부를 해치기로 하였다.

하루는 노부부가 밭을 매는데 아내가 아무리 불러도 남편이 대답이 없었다. 남편 쪽을 바라본 아내는 호랑이가 남편을 물어뜯어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이에 눈이 뒤집힌 아내는 호미를 들고 호랑이에 맞서 싸웠다. 호랑이를 죽였으나 남편도 죽고 아내도 큰 상처를 입고 죽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부부애를 기리기 위하여 열녀비를 세웠다. 호랑이로 둔갑한 몽달귀신이 죽자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게 되었다.

[모티프 분석]

'노부부의 버선밭골'은 금실 좋은 노부부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들은 자식이 없이 둘만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서로를 너무 사랑한 까닭에 몽달귀신의 시샘을 받았다.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은 총각이 원한을 품고 인간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귀신이 몽달귀신이다. 몽달귀신에게 사혼식(死婚式)을 치러주면 한을 풀고 돌아간다는 이야기도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남편을 죽이고 호랑이로 둔갑한 몽달귀신은 결국 아내에게 죽임을 당한다. 마을 사람들은 남편을 죽인 호랑이와 죽기 살기로 싸워 남편의 원수를 갚은 아내에게 열녀비를 세워 준다.남편이 호환을 당했을 때 부인이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남편을 구하기 위해 맞서 싸우다 결국 순절하는 이야기는 열녀 이야기의 단골 소재가 된다.

이곳 심원정에서 마주 보이는 곳이 안의면 하원리 내동마을이라고 하는데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변에 '정태일의 처 안동권씨'라고 새겨져 있는 열녀비가 서있다.

이 비석은 늙은 부부의 애틋한 사랑의 슬픈 이야기를 지니고 있어 가슴이 메마르고 심장이 식어가는 요즈음 사람들에게 뜨거운 사랑의 불길을 되찾게 해 줄 수 있는 사랑 얘기가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옛날 심원정의 맞은편 비탈진곳에 '버선골밭'이라는 밭이 있었다. 버선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 밭을 경작하는 주인은 슬하에 자식도 없이 부부가 단둘이 살아가고 있는 노부부였다. 한쌍의 원앙새도 시샘을 할 정도로 금슬이 좋은 노부부였었다.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도와 부부사이에 조그만한 틈도 없었던 것이다.

남편이 병이 나면 아내는 온 정성을 다하여 남편의 병이 낳을때까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약을 구하고 병간하였으며 아내가 피로하면 남편이 밥을 짓고 빨래까지 할 정도로 서로가 극진히 위하였다.

그들 노부부는 이 밭에 고추, 감자, 조, 콩 등 갖가지 곡식과 채소를 심어서 자식처럼 가꾸고 키우며 일하는 것으로 낙을 삼았다.

"여보, 콩이 황금나무처럼 탐스럽게 익어가네요."

"그러게 말예요, 당신이 그토록 정성을 쏟았으니 금보다 귀한 콩이 아니고 뭐예요."

두 사람은 언제나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한편 평화로운 이 마을에 어느때부터인가 몽달귀신이 찾아들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곤 하였다. 무주고혼의 떠돌이 귀신인 이 몽달귀신은 일년에 한번 씩 이 내동마을을 찾아들었는데 그 때마다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며 심술궂은 일을 저지르고 떠나가곤 하였다고 한다.

이 몽달귀신은 이번에는 금술 좋은 노 부부를 해치고 싶었다.

"저렇게 다정다감한 노부부를 보면 참을 수자 없지. 시기심이 발동하여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어떻게 해쳐볼까?"

이 귀신은 노부부를 해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늙은 부부는 아침부터 일찍 밭에 나가서 왼종일 일을 하게 되었다. 아내와 남편은 각기 헤어져 밭 양쪽에서 김을 매 들어와 높은 둔덕이 있는 밭가운데서 만나기로 하였다.

"여보, 우리 양쪽에서 매어 들어와 가운데서 만납시다."

"그래, 서로 빨리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맬수 있을 거야."

"심심하면 소리를 질러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될거요."

그들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며 일을 시작하였다. 한참동안 일을 하다가 아내가 남편쪽을 향하여 큰 소리로

'여보 어디 있어요 ?'

하고 불렀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아내는 둔덕으로 다가가 남편이 밭을 매어오는 쪽을 내려다 보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남편을 물어 뜯어 잡아먹고 있지 않은가. 기가 막히고 통곡할 노릇이었다.

남편의 비참한 모습을 본 아내는 눈이 뒤집히고 피가 솟구쳐 올랐다.

가냘프고 연약한 여자의 몸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남편을 살려야 겠다는 일념으로 아무런 겁도 없이 호미로 호랑이에게 달려들었다. 사랑의 힘이였으리라.

어디서 그런 무서운 힘이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아내는 호미로 호랑이의 두 눈을 빼고 사방을 찍어 상처를 입혀서 호랑이를 죽였다.

그러나 아내도 호랑이와의 사투를 벌인 끝에 큰 상처를 입고 쓰러져 죽고 말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비극이었다.

한편 이러한 노부부의 비극적인 사실을 안 마을 사람들은 남편을 살리려다 호랑이에게 죽어간 그 아내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 부부애를 기리기 위해 열녀비를 세웠다고 한다.

그리고 이 열녀의 용감한 투쟁으로 말미암아 심술궂은 호랑이(몽달귀신)가 죽은 후 내동마을은 재앙이 사라지고 살기좋은 마을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사이좋게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평화로운 마을을 가꾸어 가게 되었다고 한다.

대략 이런 이야기이다.

함양이 낳은 불세출의 작가 이목일 화백이 1만장의 지리산 호랑이를 그리고 대표작이라 말한 작품. [북두칠성 호랑이 2017]

전설의 의미

여기서 조선 여인의 그 엄청난 모성 본능과 가정 유지에 대한 열망등이 순간적으로 그 폭발력을 보여준 일례이고, 민중들은 이와 같은 스토리에 포악한 호랑이로 상징되는 지배계층에 저항하는 민초의 마음을 대변한 속풀이 한판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번 이야기는 그 권씨의 열녀비가 기록에 나와 있고 남편과 자식의 이름 까지 나오지만 이를 확인할 길이 없음은 매우 유감이다. 함양에 소재한 여러 족친들에게 알아봤지만 알 길이 없고 초계정씨 문중은 답이 없다. 어쩌면 이제 문중의 일도 관공서의 노력으로 역사학도의 용역에 의해야하는 시점 까지 왔다.

擊虎救夫烈女權氏

호랑이를 때려잡고 남편을 구한 열녀 권씨 진허뺘

心身合律瑟琴多

부부의 몸과 마음이 합하여 조화로우니 금슬이 많아 좋아

山水同呂烈婦娥

함양의 산과 물은 어우러 지니 열녀가 나와 아름답구나야

虎咬丈夫逢胴損

호랑이가 남편을 물어서 몸에 상처가 생기는 일을 당하니

妻錘大獸遇睛頗

부인이 큰 짐승을 내리 찍어 눈알이 못쓰게 만들었다누나

글 권오철 기자

권율장군과 밥할머니

밥할머니 석상 앞에서 제향을 드리고 있다.

밥할머니 보존위원회 회원 및 지역주민들

밥할머니공원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권율장군은 충남 이치에서 육지에서 처음 승전고를 울리고, 오산 독산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 북상하여 행주산성에 진지를 구축했다. 1593년 3월 14일(음 2월 12일) 왜군은 1군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2군은 이시다 미츠나리(石田三成), 3군은 구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 등 그야말로 일본 최고의 정예 장군과 병사들이 총 출동한 3만의 군사력을 7개 부대로 나눠 차례로 공격해 왔다. 권율장군이 지휘하는 조선군은 3만의 왜적을 맞아 죽기를 각오하고 치열한 격전을 벌였다. 시간이 갈수록 성안에 무기가 떨어지고 부상병도 늘어나자 북한산 부근의 대부호 문씨 집안의 해주오씨 며느리가 인근의 부녀자들을 모아 여성의병대를 조직하고 전쟁에서 밥을 지어주고 부상병들도 치료해 주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오씨를 밥할머니라 불렀다. 여성의병장 밥할머니는 군인들이 돌을 무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자들에게 앞치마에 돌을 주워 나르게 하고 대승을 거두게 하는 지략을 발휘하였다. 이 전투가 행주대첩이다. 후세 사람들은 밥할머니의 석상을 북한산이 잘 보이는 고양시 창릉 모퉁이에 세워 호국정신을 기렸다.

밥할머니 석상(고양시 향토문화재 제46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삼송택지개발지구 밥할머니공원 내에 위치한다. 일제강점기 때 밥할머니 석상은 누가 그랬는지 머리 부분이 짤려져 나가고 몸통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마을 주민들과 후손들은 밥할머니보존회를 만들어 매년 가을에 제향을 드리고 있다.

올해는 10월 14일(금) 10시 제20회 의병장 밥할머니 추향 제례가 밥할머니보존회 회원을 비롯하여 동네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밥할머니공원에서 봉행되었다. 추향 제례는 충장사 제전위원장 이충구 위원장이 집례를 맡았다. 초헌관은 고양시의회 고부미 위원장, 아헌관은 창릉동주민자치회 밥할머니 교육원장, 종헌관은 해주오씨 벽성군 종중 오흥석 후손, 좌집사는 창릉동 주민자치회 동인해 위원, 우집사는 밥할머니보존회 신시것 청년부장, 축관에는 주민자치회 양정남 위원으로 분방하였다. 안동권씨 대종회에서는 권행완 편집국장이 참석하였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송웅 제39대 진잠향교 전교 취임

권송웅(權松雄, 추밀공파 34世. 41년생)씨가 진잠향교(鎭岑鄕校) 전교(典校)에 추대되어 지난 4월 1일 취임했다.

진잠향교는 1405년(태종5)에 창건된 6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향교이다. 진잠향교에는 공자(孔子)와 안자(顔子),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孟子) 4 아성(亞聖)과 송나라 주돈이(周敦頤), 정호(程顥), 정이(程頤), 소옹(邵雍, 소강절邵康節), 장재(張載, 장횡거張橫渠), 주자(朱子) 6현(賢)을 비롯하여 설총(薛聰), 해운(海雲) 최치원(崔致遠), 회헌(晦軒) 안유(安裕),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퇴계(退溪) 이황(李滉), 우계(牛溪) 성혼(成渾), 율곡(栗谷) 이이(李珥), 중봉(重峯) 조헌(趙憲),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남계(南溪) 박세채(朴世采) 등 우리나라 18현(賢)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으며, 매년 춘추향사를 봉행하고 있다.

진잠향교 대성전은 대전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6호로 지정되어 있다. 권송웅 전교는 남강공(南岡公, 21世)계 충정공(忠貞公) 권협(權悏, 22世)의 12대 후손으로 고향은 김포이고 대전에서 40여 년째 살고 있다. 남강공 권상(權常)의 아들 오형제는 모두 임진왜란 시 공을 세운 공신으로 유명하다. 전교 임기는 3년이다.

권행완 편집국장

인연(因緣)이란 어떤 것인가?

심산(尋山) **권오록** 전 경주풍수지리학회장

"깨"와 소금을 섞으면 "깨소금" 이 되듯 깨와 설탕을 섞으면 "깨달음"이 됩니다.

뉴턴과 사과의 인연이 法則을 낳았고 "잡스"와 "애플" 과의 만남이 世上을 바꿨으며 서애 유성룡과 이순신 장군과의 인연은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했습니다.

신라 때 원효대사는 동학(同學) 의상대사와 함께 불법(佛法)을 닦으려 당唐나라 유학길에 밤중에 목이 말라 물을 찾던 중 해골바가지를 만나 더러운 물을 먹고 난 후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一切唯心造)"를 깨달았듯 해골바가지를 만난 것도 인연이며 의상대사만 당나라에 가서 불법(佛法)과 풍수지리학을 전수(專修)하고 돌아와서 영주 부석사(浮石寺)와 부산 동래 범어사(梵魚寺)를 창건하였다. 원효대사는 경주 문천교(汶川橋)에서 요석공주를 만나 설총을 낳았다. 설총은 신라 십현 중 한 사람이다. 문천교가 지금 월정교(月精橋)다. 이런 것이 다 인연 아닌가?

"자살"이라는 글자를 반대로 하면 "살자"가 되며 덥다고 짜증을 부리면 몸도 마음도 상할 뿐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것이 다 인연이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아니다. 마음가짐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인생길에는 수많은 인연의 깨달음이 있다. 마음먹기에 따라 천당과 지옥의 갈림길이 된다.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감사할수록 더 커지는 거다. 마음이 무거우면 세상이 무겁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 우주의 섭리를 깨우칠 수도 있고 스치는 바람에도 계절의 원리를 알 수 있으며 서로 나누는 악수에서도 사랑을 깨닫는다. 이런 것이 다 인연이 아닐까?

"욕심"은 부릴수록 더 커지고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며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고독해진다. 모든 것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것은 안심입명(安心立命)이 목적"이다.

정정보도 2023년 10월호 2면 광고 중 잘못 보도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정정 전	정정 후
검교공파 파조 추향제 및 정기총회 안내 추향제 일시: 2021년 10월 16일 토요일 오전10시 안건 : 검교공파 파보발간, 배부 종결로 결산보고 및 추진위원회 해산 건 회장 권무탁 010-3538-3515 安東權氏 檢校公派宗會 會長 權武倬	**검교공파 파조 추향제 및 정기총회 안내** 추향제 일시: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안건 : **기타 현안문제 토의** **회장 권정택 010-9360-1077** **安東權氏 檢校公派宗會 會長 權正澤**

제24회 옥소 권섭 대상 전국 시조창 경연대회 개최

제24회 옥소(玉所) 권섭(權燮, 1671~1759, 시중공파) 대상 전국 시조창 경연대회가 10월 6일 충북 제천시 풍양로 81에 위치한 명성유유컨벤션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경연종목은 평시조부, 사설시조부, 합창부, 대상부로 나뉘어 자웅을 겨루었는데, 대상부에 출전한 김홍업씨가 장원을 차지하여 충북도지사가 수여한 상장과 3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사단법인 대한시조협회 제천시지회에서 주최하고 제천시, 제천시의회, 제천문화재단, 제천문화원, 제천시옥소문화연구소, 안동권씨대종회, 사잔법인 대한시조협회중앙본부 등에서 후원했다. 옥소 권섭은 시인으로 3000여 수의 시와 옥소집(玉所集)이 전해지고 있다.

권건중 상임부회장(왼쪽)과 김홍업 장원수상자

권행완 편집국장